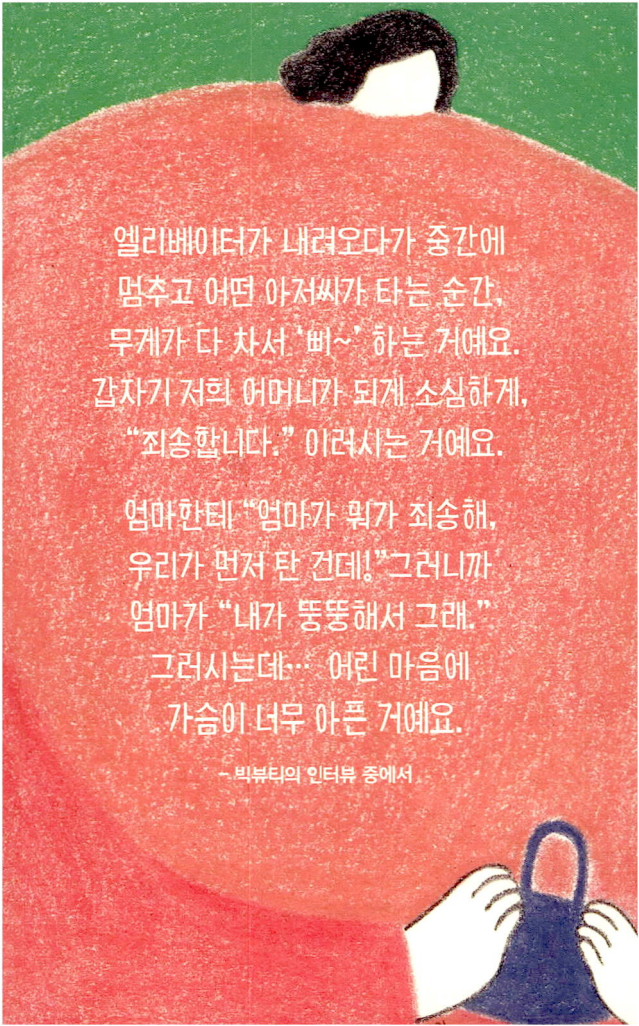




엘리베이터가 내려오다가 중간에
멈추고 어떤 아저씨가 타는 순간,
무게가 다 차서 ‘버~’ 하는 거예요.
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소심하게,
“죄송합니다.” 이러시는 거예요.

엄마한테 “엄마가 뭐가 죄송해,
우리가 먼저 탄 건데!” 그러니까
엄마가 “내가 똥똥해서 그래.”
그러시는데… 어린 마음에
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.

- 빅뷰티의 인터뷰 중에서



동뚱해서 죄송합니까? - 예뻐지느라 아픈 그녀들의 이야기

글  Womenlink
한국여성민우회 출판사 후마니타스

후원  한국여성재단